

충남교육청, 언론광고비 누가 결정하나?

각 언론사별 집행내역 하늘과 땅, 도 넘는 편향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언론사별 광고집행 금액을 확인한 언론사 및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이 언론사별 광고집행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형평성을 잃는 행정을 보여주지 때문이다.

이는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교육은 같은 꿈을 꾸다’는 홈페이지 문구는 헛구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받아본 충남교육청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을 보면 많게는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한 언론사가 있는 반면, 1~2백만원을 집행한 언론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언론사별 형평성 잃는 충남

교육 행정에 대해 언론사 및 주민들은 광고비 차등 집행에 대해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충남 교육홍보는 수천만원을 받는 언론사나 1~2백만원 받는 언론사나 동등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광고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교육 전문 신문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언론인들과 주민들은 “이 광고금액을 김지철 교육감이 결정 집행했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결정 집행했는지 모르나 현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충남교육청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서게 비판하고 있다.

이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을 잃는 행정을 교육기관이 벌일 줄은 생각지

도 못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보면 충남도 교육위원들은 눈을 감고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 위원들의 무능마저 질타했다.

언론인 B는 “김지철 교육감도 문제지만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할 충남도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의 무능과 형식적인 의정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행과 관습에서 하루빨리 탈피, 선진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인 K는 “기관 광고비를 이처럼 형평성을 잃게 집행한 김지철 교육감이 오는 6.1지방선거에 또다시 출마해 교육감이 되겠다는 것은 몇몇 언

론사를 제외한 많은 언론사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꼬집고 “충남교육은 같은 꿈을 꾸게 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언론사는 수천만원을 안겨주고, 어떤 언론사는 그 십분의 일도 주지 않으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예로 대전교육감은 1억원 받을 때 김지철 교육감 본인은 1백만원 받는다면 대전교육감과 같은 꿈을 꿀 수 있겠느냐”며 “상식과 도를 넘는 교육행정에 대해 과감하게 정리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면서 표를 달라고 고개 숙이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이며 “표를 달라고 하는 자의 기본예의” 라고 했다.

/한성진 기자



세종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

다문화 학생 눈높이에 맞는 1:1 맞춤형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세종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 683명, 2020년 741명, 2021년 8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교육력 회복과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분야별 다문화 강사를 매칭해 1대 1로 방과 후 시간에 맞춤 지도한다.

올해 한국어 28명, 기초학력 28명, 상담 12명, 이중언어 8명 총 76명의 분야별 다문화 마을강사를 모집했다.

다문화 마을강사는 북부학교지원센터와 세종시가족센터에서 한

국어, 기초학력, 상담, 이중언어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다문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강사가 참여하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단위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세종시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다문화 맞춤형 교육을 심화·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월 25일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마을강사 76명을 대상으로 ‘2022년 다문화 마을강사 역량 강화 비대면 워크숍’을 운영했다.

/정민준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

개인 이메일 신청으로 참여 방법 확대, 대체인력풀 적극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기관) 현장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교(기관)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채용공고 절차 또한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업무도 경감한다.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풀은 대체인력 채용 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학교(기관)에서 요청 시 대체 근무 경력자등만 인력풀에 등재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율이 높지 않아 실제 활용률이 낮았다.

시교육청은 인력풀 활성화를 위해 등재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기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이메일로 등재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로 적격 여부를 조화해 승인한다.

등재 방법 확대를 통한 절차 개선으로 개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 폭 개선했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정은남 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을 통해 앞으로 학교(기관)에서 대체인력풀에 등재된 인력을 업무 공백 없이 적기에 채용할 수 있게 됐다”며 “채용공고 등의 절차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재 신청서류는 매월 1~7일 사이에 시교육청에서 접수받아 적격 여부를 조화한다.

적격자는 매월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풀에 등재하고 자료를 지속해서 현황화하기로 했다.

/최영준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의 위기 지원을 위한 역량 높인다

학교안정화 및 위기대응지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10일 호철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도내 Wee센터 위기학생 지원 업무담당자와 임상심리사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정화 지원을 위한 ‘위기대응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 무기력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특히, 학생 자살 및 자살시도 등의 사안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사안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지원 요청도 많아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업무역량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학교안정화 및 위기대

응지원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업무담당자들에게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주기 위해 이번 연수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는다. 이럴 때 매우 혼란스럽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도움을 받고 향후 위기상황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조영래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며, 학교 현장의 지원과 학생들을 위



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안정화와 위기대응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지역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수 대상자들의 참석 전 자가검점 키트 검사, 수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하성애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일 학습코칭지원단 52명(시교육청 16명, 동부교육지원청 19명, 서부교육지원청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발되는 학습코칭지원단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상담학 등을 전공하거나 전 문상담교사·초중등교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 자격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된다.

이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만나 학습 동기를 촉진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제시해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 한 학습코칭의 효과가 학교와 가정에서 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부모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월 말부터 학교의 학습코칭 서비스 신청에 따라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학습코칭지원단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배움의 열망을 이끌어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만족할 만한 학업 성취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역사가
너를 닮았다

가금현 시집

현산가금현 작가의 네번째 시집 『역사가 너를 닮았다』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성실할수록 태도가 안정되어 간다. 성실할수록 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한잔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

판매처: 전국 대형서점 및 네이버쇼핑(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로켓와우, 보리보리, 밀크북, 에스더블유 등), 인터파크, 교보문구, 예스24 등

가격 10,000원 / 구입문의: 080-631-8114